



연중 제4주일
해외 원조 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해외 원조 주일 2021.1.31.

세계에 전하는 한국 교회의 사랑

인류는 한 가족, 우리 공동의 집

우리 공동의 집을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은 '사랑'입니다.



 **Caritas**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Korea

후원문의 02)2279-9204 | 홈페이지 www.carita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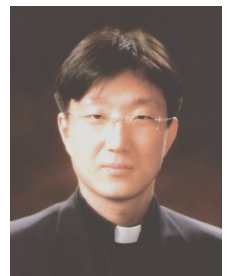
강론

인피니티 풀infinity pool

인피니티 풀infinity pool을 아십니까? 시각적으로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설계된 수영장이나 욕탕을 뜻합니다. 예전에 휴가 때 묵었던 온천 숙소의 욕상에서 이렇게 설계된 온천탕을 이용하며 놀랐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나중에 이런 욕탕이나 수영장이 ‘인피니티 풀’이라는 설계기법이라는 것을 알았었지요. 경계가 없이 바다까지 이어진 듯 보이는 탕에 몸을 담그니 마치 넓은 바다 가운데 내가 들어있는 듯한 느낌에 황홀해 했었습니다. 시각적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경험도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본다는 것이 이리도 쉽게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낯설었지요. 눈으로 본다는 것이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믿음직한 근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쉽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나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보이는 것도 그러할 진데 보이지 않는 것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니 많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처럼 단정 짓게 되기도 하구요. 때로는 있기는 한듯한데 무한하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경계가 없는 것처럼 설계된 인피니티 풀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것을 헤아려보고 믿으려는(faith, 信仰) 사람들입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들 안에 마음이 있고 하느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믿으려 노력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보이지 않는 마음속이 무한(infinity, 無限)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담으려면 그렇지 못한 것을 비워내야 좋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서는 회개와 믿음(faith, 信仰)을 선포하시고(마르 1,15), 이 선포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당신을 따라나서게(마르 1,20)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서에서 전하는 첫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복음 말씀의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비움’입니다. 이 비움의 가르침은 좋은 영을 담기 위한 전제이고 준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비워지지 않은 곳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우리들 마음이 생각보다 무한(infinity, 無限) 하지 않으며, 비워지지 않은 마음에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없는 이치일 것입니다. 이번 주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우리들 마음속에서 비워내야 할 것들을 잘 비워나갈 수 있도록 묵상하고 다짐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비워낸 우리들의 비좁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영들을 담아내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응답합시다.



이우진 요한 신부 | 망경동본당 주임



제 1 독 서 신명 18,15-20
화 답 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 2 독 서 1코린 7,32-35
복 음 마르 1,21-28

주일 진레



신약성경

사도행전 읽기 20

염철호 요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로마에로의 여정(27,1-2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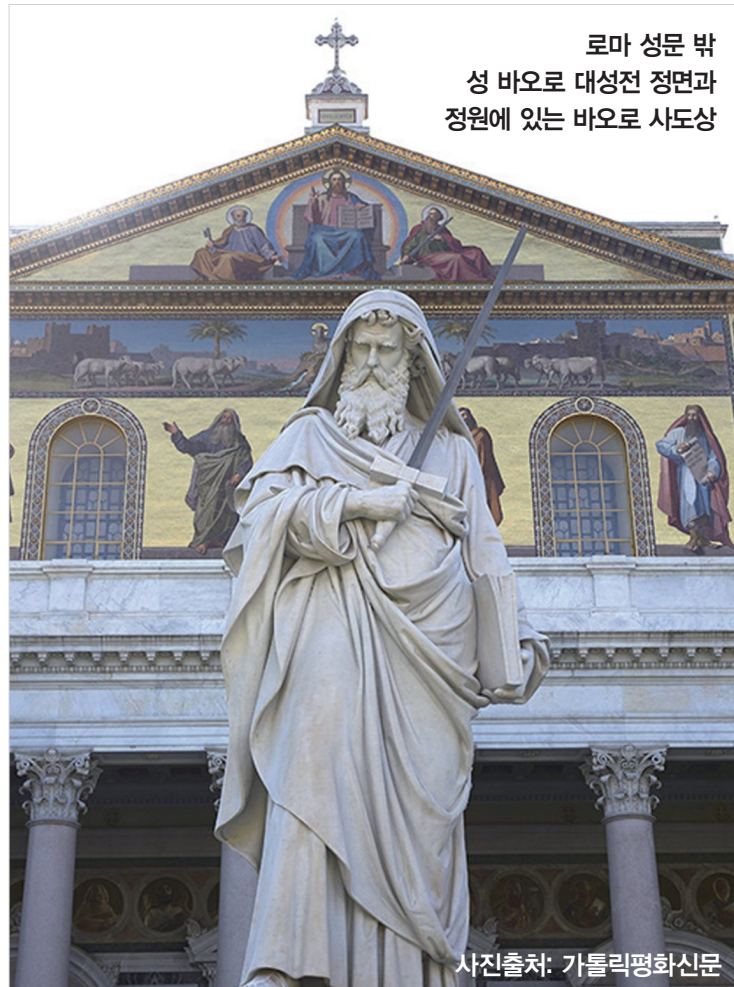
바오로는 로마 백인대장과 군인들의 호송 아래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지중해는 잔잔한 바다지만, 깊은 바다에서는 풍랑이 자주 일기도 해서 가급적 내륙에 붙어 항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키프로스나 크레타 섬과 같은 큰 섬들은 중요한 기항지 역할을 하곤 했기 때문에 바오로와 그 일행도 이 항로를 따라 로마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겨울 항로는 폭풍우가 심해지고, 우기가 겹쳐 배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그들은 크레타 섬의 페닉스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하고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에 배가 난파되어 열나흘 동안 물 위를 떠돌다가 구사일생으로 몰타 섬에 상륙하여 석 달을 지내게 됩니다(28,11). 이후 그들은 배를 타고 시실리아 섬의 시라쿠사를 거쳐 로마로 올라가는데, 대략 61년 봄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마로의 여정을 보면 바오로가 마치 사람들을 인도하여 로마로 개선하여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로마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바오로를 맞이하러 나오는 것을 보면 바오로가 마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바오로의 로마 선교(28,17-31)

로마에 도착한 바오로는 경비병의 감시하에 다른 죄수들과 떨어져 따로 지낼 수 있는 허락을 받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였기에 바오로는 자유롭게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리신 말씀,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로마 제국 끝이 바로 땅끝이었습니다.

열린 결론

사도행전은 조금 급하게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분량으로 신약성경의 1/4이나 되는 루카의 글이 이렇게 급히 마무리되어도 되나 할 정도입니다. 바오로의 재판이나 순교 이야기도 담지 않고, 이야기를 중간에 끊어 버리는 일종의 ‘열린 결론’입니다. 아마도 루카는 이 열린 결론을 통해 바오로가 이루지 못한 남은 일, 곧 정말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듯합니다. 루카 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은 독자가 루카 자신처럼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세 번째 책, 곧 교회의 행전을 써 내려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열린 결론의 의도인 듯합니다.



로마 성문 밖
성 바오로 대성전 정면과
정원에 있는 바오로 사도상

사진출처: 가톨릭평화신문

나를 살리는 우리의 노래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수진 이야기-진, 진. 이동은. 정이용 만화

수진은 친언니와 함께 식당을 하며 살아갑니다. 몸이 안 좋아 갱년기려니 하고 병원을 찾았다 임신이란 말을 듣습니다. 사귀다고 하긴 애매한 임소장과 사이에서 생긴 앵니다. 수진의 아들은 여섯 살 연상녀를 사귀고 있습니다. 말 못하고 고민하는 수진에게, 뭐든 마음대로 하는 임소장이나, 이성 사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아들이나 못마땅해 보입니다.

진아 이야기

진아는 여성전용 고시원에 기거하며, 낮에는 청소용역, 밤에는 여성전용 대리기사로 악착같이 일합니다. 하나 있는 가족인 여동생의 대학공부를 꼭 시키리라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대입 특별전형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려 해도 밀린 병원비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못 떼 어렵습니다. 딸들이 어릴 때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홀로 돌아가신 뒤 무연고 처리된 것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수진 이야기

견뎌온 내 청춘아, 그 누가 알아주나.

어렵게 수진은 임소장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지만, 그는 수진에 대한 염려보다 자기 걱정을 먼저 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 애인만 신경 쓰는 아들, 그 나이에 무슨 임신이냐며 타박하는 언니, 책임 회피하는 임소장,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한 고비만 넘기면 진짜 내 인생 나을 거라며 청춘을 다 보내고 보니,
그 고비가 그냥 내 인생이었다.

참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진아 이야기

고시원 옆방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 진아가 사망신고를 하려고 동사무소를 찾습니다. 가족이 아니지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이전에 하지 못했던 아버지 사망신고도, 동장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진아는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받게 되고, 동생은 특별전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만 삶은 그렇게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동생과 같이 노래방을 찾은 수진, "다시 만난 세계" 노래를, 둘이 함께, 부릅니다.

수진 이야기

아들은 엄마 눈치를 보며 결혼 얘기를 꺼냅니다. 아들의 애인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수진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직은 결혼을 받아들이기가 이르다고 여깁니다. 결혼을 쉽게 생각하고 급하게 하려 하지 말라는 수진에게 아들은, 애인의 임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돼. 그럼 저절로 다 살게 돼 있어.

모르겠다. 누구는 그냥 살라 하고, 누구는 대비하라 하고.

대비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면, 끝인가...?

사는 의미는 뭔지 모르겠고, 산 만큼의 세월은 더 남아 있는데,
그 세월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

수진은 행여 임신 때문에 결혼하려는 게 아닌가 염려스러워 미래의 며느리를 더 챙깁니다. 그리고 임신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진 말라고 진지하게 조언합니다. 젊을 때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걸 하라고도 얘기해줍니다. 수진도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배우러 다니고, 새로운 인생을 다짐하며 마음속 생각을 글로 옮깁니다.

盡(진)

進(진)

이동은과 정이웅 이야기

「진,진」은 삶의 ‘다함(盡)’과 ‘나아감(進)’을 담은 이야기다. 진아와 수진 두 여성이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삶이 다하는 순간들, 그 뒤에 남겨진 생,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한 작품이다. 작품 속 진아와 수진은 나이와 직업이 다르지만 각자의 생활에서 겪는 생(生)과 사(死)의 무게는 어쩌면 비슷하다.

삶은 고통이라고 했던가. 우리는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다른 사람의 삶의 일부를 빌려 태어나고 죽는다. 어머니의 고통 가운데 태어나야 하고,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며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삶은 노래한다. 아니, 그래서 삶은 노래한다. 어차피 고통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 일이다. 나와 당신의 삶은 노래한다. 지금, 이곳에서. -이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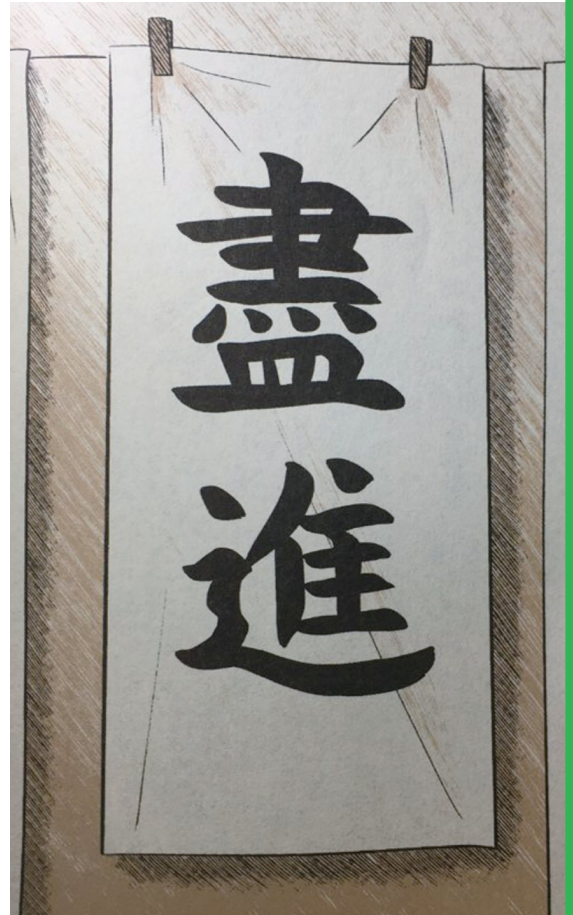
우리는 첫 단행본부터 지금까지 책 표지에 이름을 표기할 때 글, 그림을 구분 짓지 않고 나란히 병기했다. 무 자르듯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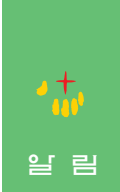
출간 미팅 중 편집자님으로부터 오랜 파트너십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는 자주 싸우기도 한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오히려 그 싸움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공동으로 작업을 이어갈 수 없었을 거란 생각도 든다. 앞으로도 협력과 싸움 사이를 오가며 작업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정이웅

수‘진’과 ‘진’아 이야기-盡해도(다되어도), 盡하며(다해서), 進하는(나아가는)

수진과 진아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진아가 대리기사 일을 하고 서울로 들어갈 때 우연히 수진과 그 언니의 차를 얻어 탄 적이 있습니다. 둘은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갔으며, 모르는 사이 서로의 연결점이 생겼습니다. 이후에도 둘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끝일 듯 힘들어도(盡) 각자의 삶을 다해(盡), 그 삶을 계속 살아나갈(進) 때, 삶은 각자의 삶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사랑’을 사는 이는 ‘이웃 사랑’을 살게 되고, ‘이웃 사랑’을 살고자 하는 이는 ‘나 사랑’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을 삽니다.

진짜 내 인생이 지금의 고비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고비가, 지금 이 고비도, 진짜 내 인생입니다. 지금 삶을 노래하세요. 내 곁의 수많은 이들도 삶을 노래할 것입니다. 나의 노래가 나와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의 노래가 그들과 나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각자, 그리고 함께, 삶을 노래합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기억할 선종 사제
차기병(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1988년 2월 2일



기억할 선종 사제
박두환(베네딕토) 신부
1995년 2월 6일



기억할 선종 사제
김민수(유스티노) 신부
2013년 2월 7일

본당사목방문

일사: 2월 2일(화)

본당: 남성동

일사: 2월 4일(목)

본당: 진동

교구/본당

고3 피정

일사: 2월 20일(토) 13:00~21일(주일)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주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정(중독과 회복)
강사: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참가비: 1인 6만 원
(교구사목비 면제 본당 3만 원)
준비물: 필기구, 미사 준비(봉헌금), 세면도구

(수건, 간편한 복장(따뜻한 옷),
텀블러, 마스크

신청: 2월 7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2021년 복음화분과위원 연수

일사: 2월 28일(주일) 10:00~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각 본당 복음화분과위원
준비물: 필기도구, 미사 준비
참가비: 2만 원
신청: 2월 19일(금)까지 (FAX- 055·249·7024)
계좌번호: KEB하나 160-890012-14304
(재)마산교구-입금 시 '본당+복음화
분과'로 기입(예:양덕복음화분과)
문의: 사목국 055·249·7021~2

상반기 소공동체장 교육

일사: 3월 2일(화) 10:00~15:30
장소: 상남동성당
대상: 신임 소공동체장
준비물: 필기도구
참가비: 1만 원
신청: 2월 19일(금)까지 (FAX- 055·249·7024)
계좌번호: KEB하나 160-890012-14304
(재)마산교구-입금 시 '본당+신임'로
기입(예:양덕신임)
문의: 사목국 055·249·7021~2

위원회/기관/단체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군중후원회 정기총회

일사: 2월 6일(토) 15:00
장소: 교구청 4층 회의실
대상: 본당 지회장(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대표 1명만 참석 가능)
문의: 군중후원회 055·247·3058

기 타

가톨릭ON(생활성서 온라인 클래스)

클래스 오픈 기념: 얼리버드 할인 혜택 기간
1월 15일(금)~2월 14일(주일)
클래스 개강일: 2월 15일(월)
김혜윤 수녀(성경 본문 줌인Zoom in 구세사 편 1/
김영선 수녀(늘푸른성경여정 구역 입문+창세기)/
박기석 신부(늘푸른성경여정 신약 예수그리스도 입문)/
김효준 신부(바이블 가이드:성경 입문 가이드)/
박형순 신부(지혜 여정 이사야, 다니엘, 요나서)
문의: 010·3092·1108, www.catholicon.co.kr

예수회 동영상 및 실시간 영상 강의(3월 개강)

내용: 성경대학 동영상 녹화 강의(송봉모 신부)
한 학기 7회 동영상 링크 발송

가톨릭마산

**교구보 매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교구보 광고 후원은
복음전파를 위한
봉헌입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Enjoy your life **AVTeam** (주)AV팀 Since 2005~
avteam.co.kr

음향, 영상 시스템
설계/ 시공/ 방문 점검 및 컨설팅
김지훈 바로로 010-3243-5655

마산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대상: 신자, 일반인
 -묵상기도, 관상기도, 성찰과 식별 등(권오면 신부)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
 실시간 영상 강의(ZOOM), 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매주 목 14:00~16:00 (11회)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주일 17:00/ 문의: 010·5686·1362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문의: 010·3551·2038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자격과정 안내

일정: 3월 13일(토)~6월 12일(토), 7주간(42시간)
 2, 4주(토) 09:00~16:00(6시간)

장소: 함안 우리농 교육장(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1길 291-28 우리농 교육장)

수강료: 30만 원-KEB하나은행 160-890028-51604 (재)마산교구, 입금으로 접수 완료

접수: 2월 5일(금)까지

주관: 마산교구가톨릭상담심리학회
 (http://cafe.daum.net/mscpa)

문의: 070·8877·3217, mscps@hanmail.net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3/ 7007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3@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월 7일(주일) 09:30	서울 돈암동 본부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원천으로 이끄는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의 코로나19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목을 준비하는 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가 나왔다. 마산교구 이제민 신부가 2020년 6월 안동교구 사제 피정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목자에 해당되는 우리 사회의 리더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진단으로 시작한다. 코로나19가 드러낸 인간의 끝없는 탐욕, 교회의 불충실과 영적 세속화, 그에 대한 깊은 성찰은 복음의 원천을 되찾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가난한 이들에게 향하게 한다. “교회 밖의 가난한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며 함께하는 일을 두고 고민해야 할 것”(8쪽)이라고 거듭 당부한다.

저자는 ‘원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이 책에서 ‘원천’이란 “하느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전달하신 창조의 순간”(124쪽)이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불안한 미래로 내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천으로 이끄는 침묵을 선사”(10쪽) 했다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따져 보기도 한다.



- 지은이: 이제민 신부
- 발행일: 2020년 11월 27일
- 출판사: 바오로딸

더 큰 사랑의 길: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저의 남편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도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가도 남편의 일관성 있는(?) 이기적인 태도에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왜 저를 이토록 배려해 주지 않는 걸까요?”

“저의 공동체 안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자매에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해 주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밤새 원망하고 화를 내며 속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무수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하느님도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느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사랑해야 할 이웃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지내기도 합니다. 마음은 간절하나 몸과 입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상대가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것을 넘어 ‘제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령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사랑을 베풀었지만 자녀들은 오히려 그로 인해 사회성을 잃어버리거나 자기만 아는 삐뚤어진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와 맞지 않거나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이들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생각은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기질이나 교육 환경, 문화와 종교에 따라 참으로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삶이 완전하지 않고, 자신 역시 부족한 죄인이면서 어떻게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다른 이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공동체 내에 상식 밖으로 자신만 생각하는 미숙한 사람,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을 때에는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화를 내지만, 다른 사람은 그저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가 이내 평화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시간을 통해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고 오히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사람이 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 그릇을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소위 ‘속 시끄럽지 않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나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나의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바꾸고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공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을 했습니다. 기다려 주는 것, 침묵하는 것도 사랑의 방법입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자신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더 큰 사랑을 닮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삶을 덕을 갖춘 삶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되기 위해 정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덕이 쌓여 가는 것이지, 성덕 그 자체를 영적인 삶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삶의 진정한 목표는 하느님과의 사랑의 일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과의 사랑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영적인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다음 호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